

일본 쇼기, 오각형의 수수께끼??

●일본 기물의 특징

①문자를 기입하여 기물을 식별하고 있다

② 체스나 중국 상치 등 외국의 장기는 자신의 기물과 상대방의 기물을 색으로 식별하지만, 일본 쇼기 기물은 형상이 적아군 동일하다.

③상대방에게서 잡은 기물

【일본의 쇼기】→자신의 기물로 재이용할 수 있다

→적진에 들어가면 뒤집혀 "승진한다"

【외국의 장기】→빼앗기만 하는 규칙이다

④문자의 방향과 뾰족한 선단의 형태로 진행 방향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각국 장기의 기물과 비교하여 독자성이 있다. 쇼기 이전의 유희반의 기물에 유사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일본 쇼기의 기물 형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희반에 한정하지 않고 어떤 비슷한 형태가 존재하여 그것을 모델로 준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① 기물 형태와 같은 독특한 오각형이 우리나라 고대부터 중세에

걸쳐 존재했던 것

②게다가 상당한 정도로 일반화되어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웠던 것

③표면에 문자를 기입하여 내용이나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것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이타비(板碑, 가마쿠라 시대에는 이미 오각형으로 완성)'와 '교치쓰하이(經帙牌, 경전의 포장에 붙여진 찰)'가 있습니다.